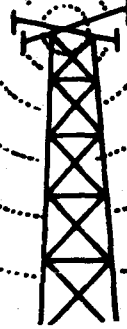


9월의 안테나



노 영 한

(本誌 編輯局長)

돼지고기 1근
1,000원

농수산부는 지난14일부터 돼지고기 산매가격을 서울과 도청소재지에서는 600g 한근에 1,000원씩(농협 직매장 포함), 시군에서는 900원씩 판매케 함으로써 종전보다 각각 200원을 내리도록 각도에 지시했다.

그동안 돼지고기 산매가격은 서울과 도청소재지에서는 한근에(600g) 1,200원 일반시군은 1,100원씩 받았다.

이번 돼지고기 값을 내리게 된것은 최근 산지 돼지 값과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크게 내렸기 때문이다.

농수산부는 이에 따라 8월14일부터 각 시도별로 내리지 않고 종전대로 받거나 값을 제시하지 않고 파는 정육점에 대해 강력히 단

속할 방침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돼지고기는 여름철에 잘 먹어야 본전이라는 등. 지금까지 여름철에는 기피하는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중동지역의 회교국들은 돼지고기는 금기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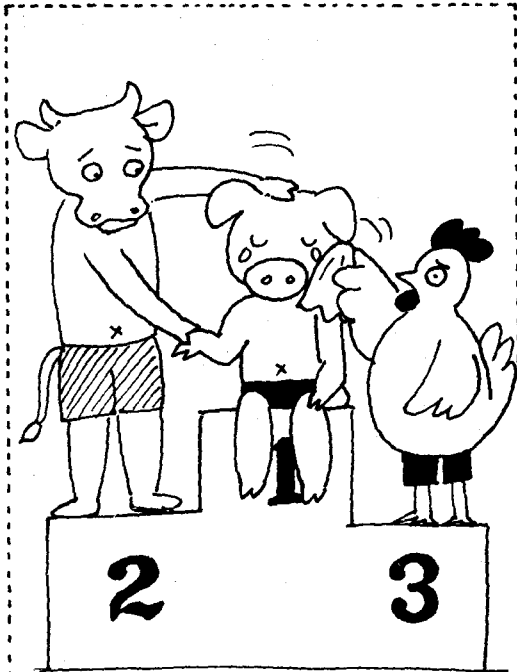
성경에도 구약에 보면 우제류 반추동물 닭고기등을 먹도록 되어있고 돼지고기는 빠져있다.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소비는 냉장고의 보급. 일반 식생활의 개선과 요리방법의 개발 등으로 크게 증가하여 과거 10년간 소비증가율을 보면 쇠고기 112% 닭고기 71%에 비하여 145%나 증가하여 돼지고기의 수요가 가히 폭발적임을 알수있다.

78년도 우리나라 육류 소비량중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49.7%로 육류 소비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마치 쇠고기(26.8%)나 닭고기는(23.5%) 돼지고기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인상마저 들형편이다.

우리나라 육류의 주종인 돼지고기 가격이 20%인하 되었다. 양계업자 특히 부로일터업자에게는 소비시장이 잠식당하는 결과가 되어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축산 진흥회에



<육류소비량 챔피언의 슬픔>

다함께 위로와 격려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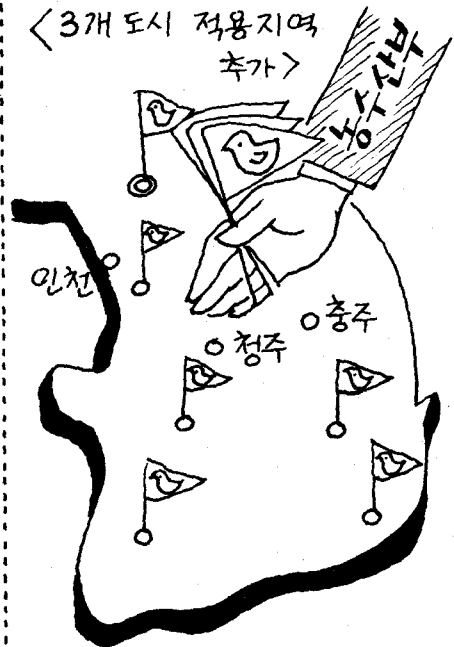
서 조사한 소비성향을 보아도 닭고기 구입여부를 결정하는데 가격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닭고기는 쇠고기나 돼지고기 보다 값이 싸기때문에 많이 소비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닭고기의 경우 代賸財 가격에 따라 소비의 변화가 커서 더욱 소비위축이 예상되는데 농경연 조사에서도 쇠고기 값이 10% 하락할 경우 닭고기는 소비가 7%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추석이 지나면 닭고기 소비의 비수기에 들어가고 돼지고기의 수요기를 맞아 부로일러의 생산비 절감과 계속적인 소비자 교육으로 또 한번의 소비 위축으로 인한 불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겠다.

인천시, 충주시,
청주시도
도계품으로 유통

농수산부는 지난 7월27일 농수산부 고시 제 3075호로 동고시 제3006호(78. 8. 5)중 일부를 개정하여 고시 하였다.

지금까지 서울,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등 6개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축(닭)의 적용지역이 이번에 인천시, 청주시, 충주시의 3개 지역이 추가 되었다. 이 3개 지역

<3개 도시 적용지역 추가>



에 대한 고시는 9월 1일 부터 시행된다. (고시 제3006호는 월간양계 78년 9월호 35page 참조)

(고시내용)

- 농수산부 고시 제3075호
농수산부고시 제3006호(1978. 8. 5)중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79년 7월 27일

농수산부 장관

1. 수축(縮)의 적용지역중 다음지역을 추가 지정한다.

다. 경기도 : 인천시

사.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부 칙

1. (시행일시) 이 고시는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養鷄産業安定
현재로는
나폴레온이 해도
불가능

대한 양계협회는 지난13일 오세정 회장 주재로 사계 전문가및 업계 대표 모임을 갖고 양계산업의 안정대책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김춘수, 박영인, 오봉국, 유종래, 윤경중, 이유방 참석)

이날 모임에서 주로 토의된 내용은

1. 양계 산업은 단기간에 양산이 가능한 사업으로 양계산물 가격의 불안정과 수급 불균형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2. 지금까지 양계업자는 생산조절에만 해결 방법을 모색 하였으나 임의로 생산하고 전

근대적인 유통구조, 불합리한 소비구조 등 생산 유통 소비 부문을 다함께 개선하지 않으면 양계 산업의 가격 조정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3. 양계산물의 수급조절, 유통능률의 제고(提高) 적정가격의 형성, 소비촉진(소비자 교육)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며
4. 이러한 사업의 수행방법으로 계열화조직 시설 자금·확보 생산유통 시범정책 결정및 집행기구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현행 축산법의 일부 수정이나 개정 작업으로는 불가능하며 양계 안정법 같은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5. 현 양계산업은 전업내지 기업화 되어 생산조절이 가능하며, 계획생산, 등록제 등

은 자유경쟁을 억압하나 산업을 발전시키고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의견과 현재와 같이 기본 통계자료도 불하고 년중 수요량과 가격진폭이 큰 현실정으로 양계업의 등록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 및, 총물량만 조절하고 세부적인 것은 계열화로 자율적으로 생산조절을 하는 방법등, 외국의 장점은 선택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방법등을 계속 연구하기로 하였다.

6. 대개의 우리나라 산업이 영세한 상태에서 중소기업으로 발전하여 난립되는 상태에서 조정기를 거쳐 생산성이 낮은 업자의 탈락후 대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양계산업을 하루빨리 안정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양계 안정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전환기의 양계산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서는 안될일과 해야 될 일을 실천에 옮겨 80년대에는 안정된 양계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는 나폴레옹이 다시 살아나도 양계산업을 안정기조위에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배합사료 생산구성비 크게 변화

— 브로일러 잠재시장 더욱
개발해야 —

우리 업계에서 흔히들 경기전망을 할때 이 용되는 통계로 배합사료 생산실적이 있다.



<그림자>

현재 집계되는 축산분야 통계가운데 가장 신뢰성이 높고 이제 대부분의 축산이 배합사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1년 앞의 양계 경기전망에는 중계의 생산 배부수수나 산란용 조생추 출하수수도 이용되지만 역시 배합사료 생산 실적과 함께 비교하여 경기전망을 하고 있다.

한국 사료 협회 조사에 의하면 금년도 상반기 배합사료 생산 추세는 표1과 같다.

표 제일 밀의 78년 같은 기간의 배합사료 생산량과의 비교를 보면 육추용이 26% 산란용 34% 육계용 40%로 양계용 사료가 34%가 증가 하였다.

금년도 상반기 육계용 사료가 작년의 40%가 증가한 것은 불경기 속에서도 일반소비자가 닭고기를 78년보다도 40% 더 소비하여

표 1. 배합사료 생산추세

(단위: 톤)

년 월 별	양 계 용				양돈용	낙농용	비육용	기타	계
	육추용	산란용	육계용	소 계					
1975 1-6(A)	151,336	420,152	227,650	799,138	186,054	149,287	106,716	1,570	1,242,765
1979. 1	29,330	85,511	50,588	165,429	70,816	35,233	21,673	123	293,279
2	31,394	86,457	54,704	172,565	74,242	19,030	38,135	220	304,182
3	35,178	97,095	59,698	190,971	78,231	20,444	40,443	184	331,273
4	32,860	98,239	53,488	184,587	88,132	39,276	21,956	198	334,149
5	34,602	103,286	53,215	190,103	108,666	37,679	23,594	214	361,356
6	27,074	93,250	46,327	166,651	104,113	31,808	16,973	180	319,725
계 (B)	190,438	563,838	318,020	1,072,296	524,200	222,574	123,670	1,119	1,943,859
B/A (%)	126	134	140	134	282	149	116	71	156
7월	23,973	89,360	47,435	160,768	108,172	30,708	19,391	148	319,187

주었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우리가 당초 예견했던 소비위축이 생각 보다는 오히려 값이 싸므로 인해서 소비가 증가된 결과로 받아들릴 수도 있어 앞으로 부로일러 산업은 현재의 사료효율 3~3.5를 외국의 2~2.2까지 개선하고, 환경 조건의 개선으로 생산성만 향상하면 소비시장을 얼마든지(?) 넓힐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준 79년의 상반기였다고 생각된다.

물론 양돈의 경우같이 전년대비 282%의증가로 불황이 장기화 될 조짐이 보이는 업종의 경우는 양계와 달라 축산진흥회의 적은양의 물량비축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고민이 있기도 하다.

양돈용 배합사료의 폭발적인 증가로 배합사료중 양계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1970년의 90.5%이던것이 이번 7월에는 50%로 크게 낮아졌다.

과거 양계 사료의 비율은 72년도까지는 80%이상을 차지하여 양계산업의 발전이 배합사료 공업의 발전을 가져왔고 양계경기의 여하에 따라 사료업체에도 큰 영향을 주어왔으나 이제 점차 양돈을 주로하여 낙농 비육사업의 전업내지 기업화에 따라 배합사료 구성도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서 사료 공업도 더욱 다양하고 안정되게 발전 할 수 있게되었다. 다만 년 50%씩 증가하는 배합사료 생산량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번 6월부터 그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그동안 정부의 성장 정책으로 축산물 소비도 과열 되었던것이 안정을 되찾는 것인지는 전문가의 연구가 필요하겠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정상적으로 계속된다면 지금까지의 축산물 장기 수요 예측이 크게 빗나가 총물량 생산의 수정이 불가피 하

표 2. 배합사료 구성비

(79. 1~6월)

구 분	육 추	산 란	육 계	소 계	양 돈	낙 농	비 육	기 타	계
농 협	4%	15%	6%	25%	17%	26%	32%		100%
사 협	11	31	17	59	28	10	3		100
계	10	29	16	55	27	12	6		100
79. 7월	8	28	14	50	34	10	6		100

그림 1. 과거 10년간 월별 배합사료 생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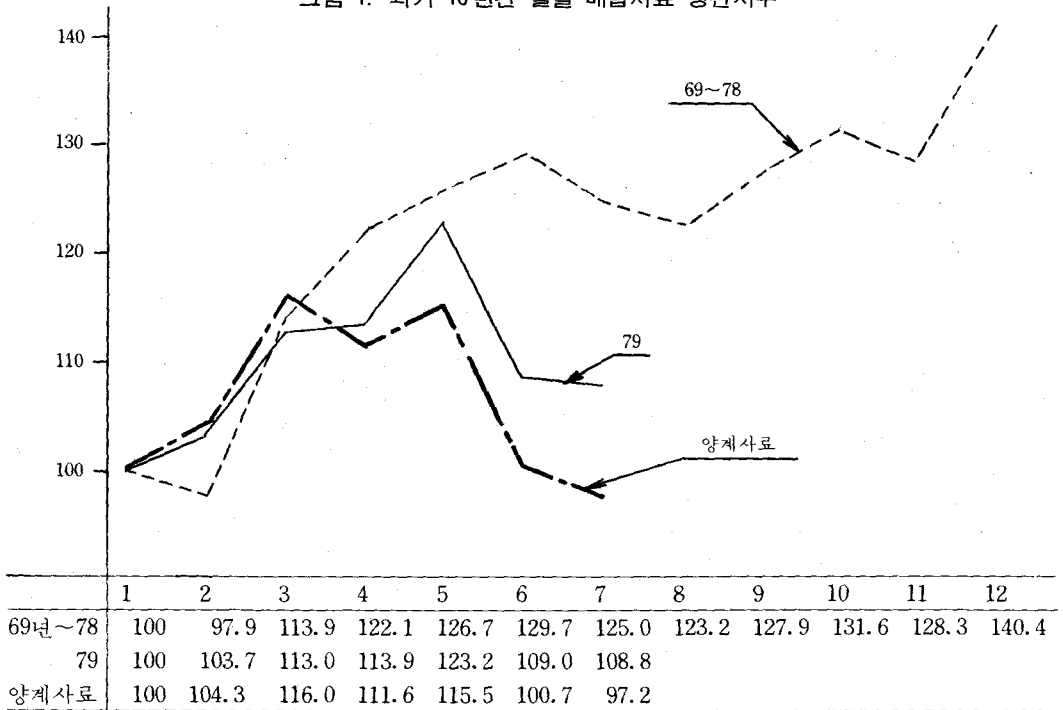


그림 2. 주요연구별 닭고기 수요예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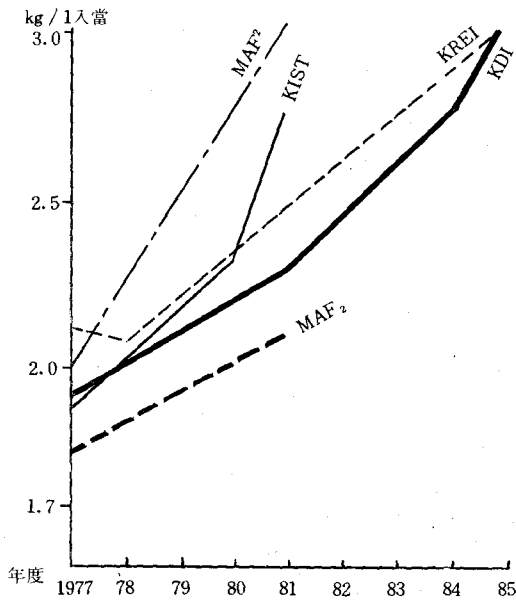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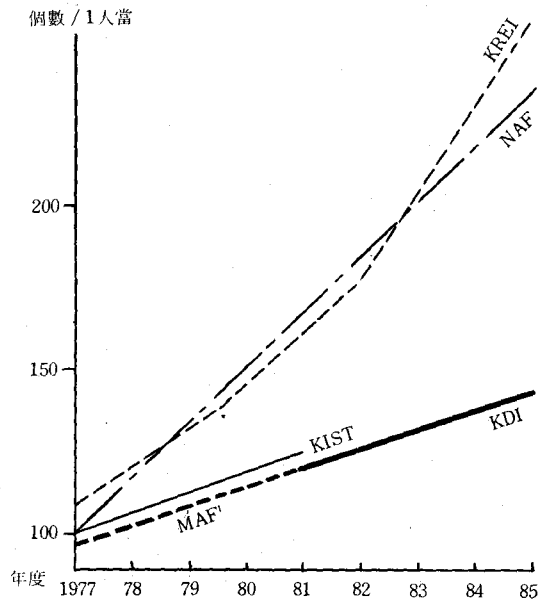


그림 3. 주요연구별 계란수요예측 비교



*MFA: 농수산부 KIST: 과학기술연구소 KREI: 농촌경제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